



《여자도 여자를 모른다》 출간한 소설가 이외수

쓰는 자의 고통이 읽는 자의 행복이 될 때까지

글_이주연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소설가 이외수 씨는 걸음걸이가 독특하다. 흔들리듯 사뿐한 걸음은 아무리 보아도 바닥에 닿지 않고 약간 떠있는 것 같다. 혼잡하고 시끄러운 강남 한복판에서 만났는데도 그의 걸음이 닿는 곳에는 물처럼 잔잔한 고요가 퍼진다. 신기한 노릇이다. 류근 시인이 붙여주었다는 ‘격외옹(格外翁)’이라는 별호가 것처럼 자연스러운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인터뷰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길거리에서 그를 알아본 독자들이 “선생님, 싸인 좀” 하며 다가오면 주름 많은 입가를 허물며 미소 지었다. 손등과 얼굴, 보이는 곳은 어디든 골진 주름투성이다. 그 주름은 그의 30년 문학 인생이 삶의 내압을 견딘 흔적이다.

책을 출간할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작가, 30년 넘는 시간 동안 항상 젊은 독자들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 홈페이지에 하루 평균 100건 이상 독자의 글이 올라오는 작가. 그가 이외수다. 최근 출간한 산문집 《여자도 여자를 모른다》 때문에 거주지 강원도 화천의 ‘감성마을’에서 “싫어하는” 도시로의 출행이 부쩍 늘어난 이외수 씨를 만났다.

《여자도 여자를 모른다》는 준비 기간이 꽤 길었던 책이다. 세밀화로 유명한 정태련 화백과 의기투합한 지 5년 만에 탄생한 책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라져가는 우리의 야생화를 정 화백이 화폭에 담았고, 거기에 어울릴 만한 ‘이외수식’ 글이 실려 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아름다운 세밀화와 자유분방한 그의 글이 예상외로(?) 잘 어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식 없는 글과 그림이어서일까.

“야생화는 인공적인 것이 없는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야생화를 통해 독자들이 내적으로 맑아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의 레이아웃도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구태의연한 ‘생물학습도감’ 같은 책이 될까봐 고민을 많이 했지요. 글도 따로, 그림도 따로 면서 그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반 이상 원고를 썼다가 엮은 적이 두 번입니다. 정 화백도 이 책의 그림을 그리면서 심장에 병을 얻을 정도였으니 둘 다 고생이 많았지요. 그래도 맘에 드는 책이 나와서 그 고생이 보람 있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목처럼 ‘여자’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는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 예찬론’이다. 그가 ‘여자’를 제목 삼은 것은 ‘여자’ 없이는 행복과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그의 평소 지론 때문

이다.

“여자가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행복하고 싶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자는 아름다움의 대명사이지만 행복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행복과 아름다움의 대명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내면적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내면적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사랑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행복하라는 말과 같으니까요.”

목소리는 탁성인데 눈빛은 어린 소년의 그것처럼 맑아, 길게 묶은 머리와 함께 이외수 씨만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세상을 비껴 산 눈빛을 가진 이가 세상살이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글을 쓴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그는 한국에서 문학을 한다는 것의 의미를 “굶어죽기 십상인 일”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러나 그는 그런 한국 땅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작가다.

“음식이 부패하면 먹을 수 없고, 발효하면 유익한 것이 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가 아닌 발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썩지 않고, 익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때론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도 감내해야 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발효하는 인간이 되자고 나를 설정했습니다. 젊은이들과의 교류, 자연과의 친화, 독서와 사유. 그런 것들이 나를 발효시키는 내 창작의 원천입니다. 쓰는 자의 고통이 읽는 자의 행복이 될 때까지 나는 쓸 것입니다.”

보통 한 편의 소설이 나오는 데 3~4년의 시간이 걸리는 그가, 작년에 나온 《장외인간》이 마지막 소설이었으니 우리는 또 얼마를 더 기다려야 그의 새 소설을 만날 수 있는 걸까.

“내년에 집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 소설의 주인공들이 슬픈 인물이었다면 이번에는 행복한 인물을 그려볼 생각입니다. 60이 넘다보니 이제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는 인물이지만 당사자는 무척이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세상 사람에게 ‘정말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느끼게 만들고 싶습니다. 읽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소설이 될 수 있도록.” ■